

農家調查結果

農民의 意識構造 變化에 관한 調查研究

金 敏 男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李 成 珪

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 I. 머리말
- II. 調查概要
- III. 分析結果
- IV. 맺는 말

I. 머리말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農民들은 交通의 불편으로 인한 地域的인 고립, 尤高적 倫理觀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生活慣習, 自給自足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營農活動, 構成員들의 동질성 등으로 農村社會에서 오랫동안 生活樣式이나 意識構造의 측면에서 정체가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重化學工業의 過剩投資로 인한 시행착오 등도 있었지만 1962년 이후 1981년까지의 4차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으로 우리 經濟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로 인해 產業化의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밀어 들어닥치게 되자

농업에 있어서도 商業化 營農時代를 맞이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農民意識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農民의 意識 內部에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한 開發意志를 고무시키도록 하여 農民意識構造를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要因들에 힘입어 農村은 농업의 변천단계에서 보편 發展指向的인 轉換期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하겠다. 1980년대의 高所得 福祉農村建設을 향한 農政의 基本方向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經濟的인 변동에 관한 조사 뿐만 아니라 農民意識構造의 分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를 위해 本研究院은 1978년부터 매년 농민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여 比較 分析해 오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農村 및 農業에 대한 농민들의 포괄적인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종전과는 달리 새로운 調查項目을 많이 포함시켰다.

이러한 농민의 意識構造에 대한 분석은 農村社會 變動을 측정하는 중요한 指標가 될 것으로 믿는다.

## II. 調查概要

1. 調查對象者: 본연구원 農政輿論調查 현지 통신원으로 위촉된 2,043명 중 「個人기록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통신원을 제외한 1,922명을 調查對象者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道別分布와 應答率은 <表 1>과 같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인 本研究院의 農政輿論調查 現地通信員들은 농촌에서 篤農家로 인정되는 농민과 農村指導所 및 農漁民團體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農村社會에서 여론 지도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地域社會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전체 농민들이나 그 지역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耕作規模나 學歷과 같은 속성에서 보면 농촌 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 2. 調查方法: 설문지에 의한 우편 조사
- 3. 調查期間: 1982년 11월 30일 ~ 12월 30일
- 4. 調查事項
  - ① 5년 전과 비교한 농촌 생활 수준의 향상 여부

- ② 농촌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점.
- ③ 농촌의 생활 수준이 저하된 점.
- ④ 5년 후의 都農間 생활 수준차의 전망.
- ⑤ 영농종사 만족 여부.
- ⑥ 농업 경영상의 불만.
- ⑦ 농업의 국가 근본 여부.
- ⑧ 농업의 타산업에 비한 손해 여부.
- ⑨ 농업의 장래성 여부.
- ⑩ 농촌정착 意思 여부.
- ⑪ 경영주의 농업의 희망 직업.
- ⑫ 자녀에게 농업권장 의사 여부.
- ⑬ 자녀에 대한 농업의 권장 직업.
- ⑭ 농업 시책에 관한 건의사항 등.

이상 14個 調查項目 중 절반인 7個項目(②③⑥⑦⑧⑨⑬)이 이번 調查에 새로 들어가게 된 항목들이다.

이렇게 새로운 조사 항목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농촌의 생활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나(②③), 농업경영상의 불만 요인이 무엇인가(⑥), 현재 농업이 처한 위치에 대한 농민들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⑦⑧⑨), 농촌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떠한 직업을 권장하고 있는가(⑬)를 보완함으로써 農業政策 수립에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5. 分析方法: 회송된 조사표의 응답 내용을 SPSS에 의해 전산처리했으며 응답자의 연령, 학력, 경작규모 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應答者의 意思를 從屬變數로 하여 階層間 比較, 分析을

表 1 應答者의 道別 分布

구 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계 수	계
통 신 원 수(명)	213	112	148	230	199	327	342	276	75	1,922
응 답 자 수(명)	167	84	113	190	155	248	255	220	47	1,480
응 답 비 율(%)	74.8	75.0	76.4	82.6	77.9	75.8	74.9	79.7	62.7	77.0
응답자 도별분포(%)	11.3	5.7	7.6	12.8	10.5	16.8	17.2	14.9	3.2	100.0

하였다.

6. 應答者의 階層別 分布 : 應答者의 연령층별, 학력별, 경작 규모별 분포는 <表2, 表3, 表4>와 같다.

表 2 應答者의 年齡層別 分布

區 分	20代	30代	40代	5,60代	計
應答者數(名)	51	254	676	499	1,480
構成比(%)	3.4	17.2	45.7	33.7	100.0

表 3 應答者의 學歷別 分布

區 分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應答者數(名)	275	560	563	82	1,480
構成比(%)	18.7	37.8	38.0	5.5	100.0

表 4 應答者의 耕作規模別 分布

區 分	零細農	小 農	中 農	大 農	計
應答者數(名)	44	305	695	436	1,480
構成比(%)	3.0	20.6	46.9	29.5	100.0

\* 영세농 (0.5ha미만), 소농(0.5~1.0ha), 중농 (1.0~2.0ha), 대농 (2.0ha 이상)

### Ⅲ. 分析結果

#### 1. 農村生活水準의 向上 여부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5년 전과 비교한 농촌의 生活水準이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로서 應答 結果는 <表 5>와 같다.

「농촌의 生活水準이 5년 전에 비하여 매우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이 23.4%, 「약간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이 53.1%로 농촌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76.5%에 이르렀다.

반면 「약간 저하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이 6.5%, 「매우 저하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이 2.0%로 농촌의 生活水準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고

表 5 農村生活水準에 대한 反應

單位 : %

區 分	向 上			同 一	低 下			無 應 答	
	매우	약간	小計		약간	매우	小計		
平 均	23.4	53.1	76.5	13.8	6.5	2.0	8.5	1.2	
年 齡 層 別	20代	33.3	52.9	86.2	9.8	2.0	2.0	4.0	0.0
	30代	26.0	55.5	81.5	11.8	4.3	1.6	5.9	0.8
	40代	20.0	54.4	74.4	14.9	7.4	2.5	9.9	0.7
	5,60代	25.9	50.1	76.0	13.6	6.8	1.4	8.2	2.2
耕 作 規 模 別	零細農	34.1	52.3	86.4	6.8	0.0	2.3	2.3	4.5
	小 農	31.5	47.9	79.4	11.5	5.6	1.6	7.2	1.9
	中 農	19.9	55.5	75.4	15.3	6.8	1.6	8.4	1.0
	大 農	22.5	53.0	75.5	13.8	7.3	2.8	10.1	0.7
學 歷 別	國 卒	25.8	48.7	74.5	15.3	6.2	2.5	8.7	1.5
	中 卒	22.7	55.0	77.7	12.5	6.6	1.3	7.9	2.0
	高 卒	22.6	52.9	75.5	14.6	7.1	2.5	9.6	0.4
	大 卒	26.8	56.1	82.9	12.2	2.4	1.2	3.6	1.2

있는 사람은 전체의 8.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마찬가지다」가 13.8%, 「무응답」이 1.2%이었다. 이와 같은 應答 結果는 전년도와 비슷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年齡層別로 「농촌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대가 8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0대로 81.5%, 50대 이상 76.0%, 40대 74.4%의 순위로 나타나 젊은 층일 수록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젊은 층의 農村生活에 대한 긍정적인 評價는 이들의 대부분이 수익성 있는 축산을 主收入으로 하고 있는데다 농촌의 道路·交通便利로 인한 도시와의 生活공간 축소로 都農間 文化를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耕作規模別로는 耕作面積이 적은 층일수록 「농촌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應答한 比率이 높아, 零細農은 86.4%, 小農 79.4%, 中農 75.4%, 大農 75.5%이었다. 이는 經濟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향상 혜택을 零細小農層일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學歷別로는 高學歷層일수록 「농촌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大卒은 82.9%, 中卒 77.7%, 高卒 75.5%, 國卒 74.5% 이었다. 이는 教育을 많이 받은 계층일수록 農村에 있어 教育機會의 확대가 農村의 質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農村의 生活水準이 향상된 점

농촌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調査對象者의 76.5%)을 대상으로 한 設問으로 그 내용은 「농촌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니까」이며 응답 결과는 <表 6>에 잘 나타나 있다.

향상된 내용은 9개로 대별되었으며 우선 이들의 構成比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4개를 순위대로 보면 文化施設이 25.0%로 가장 많고, 다음이 營農便宜로 20.3%, 所得向上 19.2%, 衣食住 15.5%이다. 文化施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최근 농촌에 電話를 포함하여 각종 電氣 및 電子製品이 대량 보급되어 온 결과, 농민들이 각종 生活의 便宜 및 生活情報의 혜택

을 크게 받았다고 판단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營農便宜의 경우, 대부분의 농민들이 耕耘機 및 脫穀機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한 機械化 營農과 이를 가능하게 한 農路擴張과 耕地整理로 農事가 편리해졌다고 하였고, 특히 1982년도의 管井을 통한 地下水開發 등으로 旱害를 극복한 농민들은 이제는 하늘에 좌우되는 운명도 극복할 수 있어 농사가 매우 쉬워졌다고 주장하였다.

階層別로 보면 老年層일수록, 耕作規模가 적을수록, 低學歷層일수록, 營農便宜의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젊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노년층이 기계화 영농으로 손을 많이 덜게 되었고, 자신의 상황에 운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영세·소농층과 技術進歩에 관심이 없었던 저학력층에서 機械의 혜택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所得 향상이 되었다고 한 농민들은 그 이유로서 신제품 보급과 영농기술 향상 등의 科學營農으로 인한 單位當 生産量增加, 特用作物과 畜産을 主穀과 결합하는 複合營農의 유도로 穀物價

表 6 농촌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점

구분		영농편의	소득향상	문화시설	의식주	물가안정	도로교통편의	생활환경개선	생활물 구입용이	교육수준
평 균		20.3	19.2	25.0	15.5	1.8	7.5	6.4	1.0	3.3
연령층별	20代	19.5	14.7	26.9	17.0	0.0	9.7	7.3	0.0	4.9
	30代	14.9	15.5	33.6	18.1	0.5	5.6	6.7	1.0	4.1
	40代	21.2	18.8	24.0	15.8	2.3	8.4	4.8	1.3	3.4
	5, 60代	22.1	22.3	21.5	13.6	1.9	7.1	8.2	0.8	2.5
경제규모별	영세농	25.7	17.1	22.8	11.4	2.9	2.9	14.3	2.9	0.0
	소농	21.5	20.2	23.6	19.8	1.3	4.7	5.6	0.4	3.0
	중농	21.3	17.8	22.9	15.2	2.2	8.6	7.0	1.3	3.8
	대농	17.5	21.0	29.4	13.2	1.3	8.5	5.2	1.0	3.0
학 령 별	국졸	26.1	19.1	24.6	15.1	1.5	5.5	4.6	2.1	1.5
	중졸	25.0	19.4	20.6	14.3	2.2	5.9	8.7	1.2	2.6
	고졸	14.2	19.2	29.1	16.4	1.5	10.5	4.7	0.6	3.9
	대졸	10.9	18.7	26.6	18.7	1.5	4.7	9.4	0.0	9.4

단위: %

는 낮아도 收入源이 多邊化, 자녀들의 도시 공장에서 收入 등을 내세웠다. 특히 老年層일수록 소득 향상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보리고개를 경험한 이들 세대들이 新品種 보급으로 인한 生産量 증가에 큰 영향을 받은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衣食住에 있어서는 多收穫品種으로 식량 사정이 좋아졌고 肉類 및 海産物消費의 증가 등 生活의 향상이 큰 要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道路鋪裝과 交通便利로 인한 農産物流通의 원활이 7.5%를, 주택개량과 취락구조 개선, 자가 수도시설의 확대 등 生活環境改善이 6.4%를, 자녀들의 進學率 향상과 매스 미디어(mass-media)의 보급 확대에 의한 教育 및 意識水準의 향상이 3.3%를, 金利引下와 物價安定이 1.8%를, 生活必須品 購入의 용이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 3. 農村의 生活水準이 低下된 점

이는 농촌의 生活水準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調查對象者의 8.5%)을 대상으로 한 設

問으로 그 內容은 「농촌의 生活水準이 저하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이며 응답 결과는 <表 7>에 잘 나타나 있다.

저하된 내용은 5개로 大別되었으며 이들의 構成比를 순위대로 보면 農産物價格下落이 48.7%로 가장 많고, 다음이 負債增加로 24.4%, 所得低下 14.1%, 營農資材價格上昇 9.0%, 人力不足 3.8%이다.

農産物價格 하락의 比率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 농촌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農産物價格에 매우 민감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農産物價格이 불안정하고 다른 物價上昇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引上이어서 生生意慾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耕作規模別로 보면 零細農層에서의 불만 요인이 모두 農産物價格 하락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 4. 都農間 生活水準差의 展望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5년 후에 農村과 都市 중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表 8 都農間 생활수준차의 전망

구 분		단위 : %					
		도 시 우 위			동 일	농 촌 우 위	무응답
		심 한	약 간	소 계			
평	균	21.5	44.7	66.2	24.8	4.0	5.1
연령구분별	20代	9.8	41.2	51.0	41.2	7.8	0.0
	30代	21.7	44.5	66.2	26.0	2.8	5.1
	40代	21.2	47.3	68.5	23.1	3.4	5.0
	5,60代	23.0	41.5	64.5	24.8	5.0	5.6
	평	균	18.2	40.9	59.1	36.4	2.3
경작규모별	영세농	15.4	44.9	60.3	29.5	4.3	5.9
	소농	21.2	44.6	65.8	24.3	4.2	5.8
	중농	26.6	45.0	71.6	21.1	3.7	3.7
	대농	20.4	44.4	64.8	22.9	5.8	6.5
학 력	국졸	19.6	44.1	63.7	27.3	3.4	5.5
	중졸	22.9	45.5	68.4	24.0	3.6	4.1
	고졸	28.0	43.9	71.9	19.5	4.9	3.7
	대졸	17.6	30.6	38.8	8.2	4.7	
학 력	중졸	14.7	17.3	50.7	12.0	5.3	
	고졸	13.6	26.1	50.0	8.0	2.3	
	대졸	0.0	33.3	33.3	0.0	33.3	

表 7 농촌의 생활수준이 저하된 점

구 분		단위 : %				
		소득저하	부채증가	농산물 가격하락	영농자금 감소	인력부족
평	균	14.1	24.4	48.7	9.0	3.8
연령구분별	20代	100.0	0.0	0.0	0.0	0.0
	30代	0.0	46.2	53.8	0.0	0.0
	40代	14.3	23.1	48.4	11.0	3.3
	5,60代	15.0	20.0	47.5	10.0	7.5
	평	균	0.0	0.0	100.0	0.0
경작규모별	영세농	20.0	20.0	40.0	15.4	4.6
	소농	12.3	23.5	49.4	11.1	3.7
	중농	15.1	26.9	47.3	5.4	5.4
	대농	17.6	30.6	38.8	8.2	4.7
학 력	중졸	14.7	17.3	50.7	12.0	5.3
	고졸	13.6	26.1	50.0	8.0	2.3
	대졸	0.0	33.3	33.3	0.0	33.3

니까」로 응답 결과는 <表 8>과 같다.

「都市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1.5%, 「都市가 다소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4.7%로 都市 우위를 전망한 사람은 전체의 66.2%에 이르렀다. 반면, 「農村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農村優位를 전망한 사람은 전체의 4.0%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都市와 農村이 비슷해질 것이다」로 응답한 사람은 24.8%이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1%이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調査對象者의 76.5%나 되는 사람들이 農村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樂觀的인 견해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都市生活水準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농가가 66.2%가 되어 아직도 상당수의 농민이 農村生活水準 향상에 대한 限界性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都市生活과의 격차를 계속 인정하는 見解는 高學歷層, 大農層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농촌의 上位階層으로 갈수록 都市와 비교한 농촌의 生活水準 향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營農從事 滿足 여부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농사 짓는데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로서 응답 결과는 <表 9>와 같다.

「매우 만족한다」가 3.3%, 「대체로 만족한다」가 22.0%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25.3%이며, 「매우 불만이다」가 9.9%, 「약간 불만이다」가 32.8%로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42.7%이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31.5%, 「무응답」이 0.6%이었다. 이와 같

表 9 營農從事 만족 여부

단위: %

구	분	만			그저 그렇다	불			무응답
		매우	대체로	소계		약간	매우	소계	
평	균	3.3	22.0	25.3	31.5	32.8	9.9	42.7	0.6
연령층별	20代	11.8	35.3	47.1	29.4	13.7	9.8	23.5	0.0
	30代	2.8	23.2	26.0	28.0	35.0	11.0	46.0	0.0
	40代	2.2	20.0	22.2	31.1	35.2	11.1	46.3	0.4
	5, 60代	4.2	22.6	26.8	34.1	30.3	7.6	37.9	1.2
경작규모별	영세농	4.5	25.0	29.5	34.1	25.0	11.4	36.4	0.0
	중소농	3.3	17.7	21.0	38.0	33.8	6.9	40.7	0.3
	중대농	3.5	22.6	26.1	32.4	31.9	9.1	41.0	0.6
	대농	3.0	23.6	26.6	25.2	34.2	13.1	47.3	0.9
학력별	중졸	2.9	20.7	23.6	40.4	27.3	8.0	35.3	0.8
	고졸	4.5	22.5	27.0	30.0	34.8	7.7	42.5	0.5
	대졸	2.8	21.0	23.8	29.5	33.0	13.1	46.1	0.5
	대졸	0.0	29.3	29.3	25.6	35.3	8.5	43.8	1.2

은 응답 결과는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營農從事に 대해 불만인 응답자의 比率이 만족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言語나 生活慣習으로 보아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은 「대체로 불만이 없다」 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현실에 만족하다」는 현실 체념적인 만족으로 보아도 좋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營農從事に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應答者의 比率은 전체의 56.8%에 이르러 不滿인 應答者의 比率 42.7%를 상회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階層別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營農從事に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大農層일수록 불만이라고 응답한 比率이 높는데 이는 農村生活水準의 향상 여부에 대한 階層別 응답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6. 農業經營상의 不滿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農業經營상의 불만요인은 무엇입니까」로서 응답 결과는 <表 10>과 같다.

表 10 농업경영상의 불만

종 류	빈 도 수(개)	구 성 비(%)
농산물 가격이 싸다	913	30.8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	654	22.1
농업자재가 비싸다	357	12.1
노동력 부족	320	10.8
자금 부족	156	5.3
노동이 힘들다	152	5.1
경영규모가 적다	149	5.0
항상 휴일이 없다	37	1.3
무 응 답	222	7.5
계	2,960	100.0

農業經營상의 불만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農産物價格과 관련된 문제인 「농산물 가격이 싸다」,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다」로 이들의 전체에 대한 構成比 合計가 52.9%에 이르고 있다.

農産物價格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反應을 보이는 것은 農産物價格의 支持와 價格安定이 農家所得保障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과거 일부 農産物 輸入과 최근 特用作物 등의 過剩生産으로 농산물가격이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산물가격 보장은 政策的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스스로 제 값을 받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農業에 있어서의 技術開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土地生産性과 勞動生産性의 향상 등으로 生産費를 절감시켜 나가야만 일시적인 가격하락이 있더라도 전체 收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農業資材가 비싸다」는 견해도 12.1%나 되고 있는데 이는 營農資材價格 引上率이 農産物價格 引上率을 웃돌고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에 불만 요인으로 「노동력 부족」이 10.8%, 「資金不足」이 5.3%, 「노동이 힘들다」 5.1%, 「經營規模가 적다」 5.0%, 「항상 휴일이 없다」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의 경우는 농업경영상의 불만 요인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의 구성비도 7.5%나 되고 있다.

### 7. 農業의 國家根本 여부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결과는 <表 11>과 같다.

「國家의 根本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3.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뿌리깊은 傳統觀念 때문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그리고 農業에 대한 職業으로서의 使命意識이 농민들에게 이와 같은 긍지를 심어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表 11 농업의 國家根本 여부

		단위 : %			
구 분	國家의 根本이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國家의 根本이 아니다	무응답	
평 균	73.2	20.6	4.1	2.1	
연령층별	20代	76.5	19.6	0.0	4.0
	30代	73.2	21.7	3.5	1.6
	40代	72.0	20.9	4.7	2.4
	5,60代	74.5	19.8	4.0	1.6
耕作규모별	영세농	79.5	9.1	6.8	4.5
	소 농	76.7	18.7	2.0	2.7
	중 농	73.7	20.7	3.9	1.7
	대 농	69.5	22.9	5.7	1.8
학 력 별	국 졸	77.1	18.5	1.8	2.5
	중 졸	74.5	19.5	4.5	1.6
	고 졸	70.9	23.4	3.9	1.8
	대 졸	68.3	15.9	11.0	4.9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0.6%인데, 이는 國家發展에 있어 工業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농민들도 느끼고 알고 있는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은 「國家의 根本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1%에 불과하였다.

年齡層別로 보면 50代 이상을 제외할 경우 젊은층일수록, 耕作規模別로 보면 零細農일수록,

學歷別로 보면 低學歷層일수록 「國家의 根本이다」라고 응답한 比率이 높았는데, 이는 이들계층이 農業에 대한 傳統指向의인 思考方式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農業에 대한 애착이 더 큰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젊은 층들이 肯定的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離農하는 상황 속에서도 앞서의 젊은 층들은 農村에 만족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營農活動에 종사하게 된 젊은이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設問들에서도 20대의 젊은이들은 농촌에 肯定的인 응답을 하였다.

8. 農業의 他產業에 비한 損害 여부

「農業은 他產業에 비해 損害라고 생각하십니까」란 設問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결과는 <表 12>와 같다.

表 12 農業의 타산업에 비한 손해 여부

		단위 : %			
구 분	손해다	손해도 이익도 아니다	이익이다	무응답	
평 균	53.6	30.3	10.2	5.9	
연령층별	20代	49.0	33.3	11.8	5.9
	30代	57.1	28.7	9.1	5.1
	40代	54.4	28.1	10.5	7.0
	5,60代	51.3	33.7	10.2	4.8
경작규모별	영세농	54.5	34.1	4.5	6.8
	소농	53.4	29.2	11.5	5.9
	중농	53.5	30.1	10.4	6.0
	대농	53.9	31.0	9.6	5.5
학력별	국졸	49.5	35.3	9.5	5.8
	중졸	51.6	31.8	10.5	6.1
	고졸	55.8	27.5	10.7	6.0
	대졸	67.1	22.0	7.3	3.7

「손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3.6%에 이른 반면, 「이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2%에 불과하였으며, 「손해도 이익도 아니다」라고 하여 중간적인 입장을 밝힌 사람은 30.3%이

었고, 「무응답」이 5.9%이었다. 이렇게 農業이 他產業에 비해 손해라는 견해가 이익이라는 견해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196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친 工業 위주의 經濟開發計劃으로 農工業間의 不均衡이 심화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學歷別로 보면 高學歷層일수록 「손해다」라고 한 반면, 低學歷層일수록 「손해도 이익도 아니다」라고 한 比率이 높았다.

한편 農業의 他產業에 비한 損害 여부와 農業의 國家根本 여부를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여 이를 深層 분석해본 결과는 <表 13>과 같다.

表 13 農業의 타산업에 비한 손해 여부와 농업의 국가근본 여부

	무응답	국가의 근본이다	어느쪽이 고도 말할 수 없다	국가의 근본이 아니다	계
무응답	0.6	3.7	1.6	0.1	5.9
손해다	1.1	38.0	11.4	3.2	53.6
손해도 이익도 아니다	0.3	22.1	7.0	0.8	30.3
이익이다	0.1	9.5	0.6	0.1	10.2
계	2.1	73.2	20.6	4.1	100.0

이를 보면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지만 他產業에 비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農民들이 아직도 農業에 대한 愛着心과 긍지를 가지고 營農活動에 종사하고 있지만 현재 工業 중심의 產業構造로 農産物의 收益性이 工産品의 收益性에 비해 다소 떨어져 있다는 견해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國家의 根本이지만 손해도 이익도 아니라는 農業에 대한 矜持와 함께 收益性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도 그 비중이 22.1%나 되고 있다.

특히 國家의 根本이며 이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5%로서 國家의 根本이 아니며 損害라고 응답한 사람의 3.2%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農業

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물론 어느 國家이건 간에 經濟發展過程에서 農工業 간의 均衡成長과 不均衡成長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우리 나라는 이른바 A.O. Hirschman의 「不均衡成長論」에 입각하여 公業을 先導産業으로 하여 農業이 발전하게끔 하는 經濟構造를 지속해 온 결과 옛부터 土農工商이라 하여 선비 다음가는 職業으로 農業을 내세워 오랜 동안 農本國家임을 자처해 온 意識構造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9. 農業의 將來性 여부

「農業에 將來性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設問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결과는 <表 14>와 같다.

「장래성이 있다」라는 적극적인 긍정이 전체의 16.5%로서 「반드시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는 적극적인 부정의 3.2%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래성이 있다」는 소극적인 肯定도 42.1%로 「별로 없다」는 소극적인 否定의 34.9%를 상회하고 있어 대체로 농민들이

表 14 농업의 장래성 여부

		단위 : %				
구분	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다	별로 없다	반드시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	무응답	
평균	16.5	42.1	34.9	3.2	3.3	
연령구분별	20代	21.6	51.0	21.6	2.0	4.0
	30代	15.7	46.5	31.5	3.5	2.8
	40代	15.7	40.5	36.4	3.8	3.5
	5,60代	17.4	41.3	36.1	2.2	3.0
경작규모별	영세농	11.4	52.3	27.3	6.8	2.3
	소농	18.7	48.5	26.9	2.3	3.6
	중농	17.8	39.1	36.1	3.5	3.5
	대농	13.3	41.5	39.4	3.0	2.8
학력별	국출	15.6	44.7	33.8	2.9	2.9
	중출	18.4	42.1	31.8	3.9	3.8
	고출	16.2	41.0	36.9	3.0	2.8
	대출	8.5	41.5	46.3	0.0	3.7

農業의 將來에 대해 밝게 展望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의 高所得 福祉農漁村 건설을 政策基調로 하여 현재 農業內에서의 複合營農추진과 農村工業의 유치 등을 통한 農外所得 증대로 農家所得을 향상시키려는 政府의 입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階層別로 보면 老年層일수록, 大農層일수록, 高學歷層일수록 農業의 장래가 별로 없다는 소극적인 부정을 하였다.

한편 農業의 他産業에 비한 손해 여부와 農業의 장래성 여부, 農業의 장래성여부와 農業의 國家根本 여부를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여 이를 深層 분석한 결과는 <表 15, 表 16>과 같다

表 15 농업의 타산업에 비한 손해 여부와 농업의 장래성 여부

	무응답	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다	별로 없다	반드시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	계
무응답	0.9	0.9	2.3	1.7	0.1	5.9
손해다	1.2	6.3	20.9	22.8	2.4	53.6
손해도 이익도 아니다	1.1	4.5	15.2	8.9	0.6	30.3
이익이다	0.1	4.8	3.6	1.6	0.1	10.2
계	3.3	16.5	42.1	34.9	3.2	100.0

表 16 농업의 장래성 여부와 농업의 국가근본 여부

	무응답	국가의 근본이다	어느 쪽이라고도 할 수 없다	국가의 근본이 아니다	계
무응답	0.3	2.0	0.9	0.0	3.3
있다	0.2	15.4	0.9	0.0	16.5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다	0.4	32.4	8.6	0.7	42.1
별로 없다	1.0	21.1	9.9	2.8	34.9
반드시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	0.2	2.3	0.2	0.5	3.2
계	2.1	73.2	20.6	4.1	100.0

<表 15>에서 농업은 「他産業에 비해 損害이며 장래성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2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損害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래성이 있다」가 20.9%로 이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에는 農業이 他産業에 비해 損害라고 생각한 階層에서조차도

農業의 장래에 대해 소극적인 부정과 긍정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農業은 他産業에 비해 이익이며 장래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8%로서 「農業은 損害이며 반드시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고 응답한 사람(2.4%)의 2배에 달하고 있다.

〈表 16〉에서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며 장래성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다」고 하여 농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전체의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나 장래성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21.1%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한편,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며 장래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4%로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 아니며 반드시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0.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10. 農村定着意思 여부

이에 대한 設問은 「계속 農村에서 사시겠습니까」로 應答 결과는 〈表 17〉과 같다.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農村定着」이 전체의 58.2%로 가장 많고, 다음이 農村을 떠나

表 17 농촌정착의사 여부

		단위 : %			
구분	이농	농촌정착	이농후귀농	무응답	
평 균	28.2	58.2	12.5	1.0	
연령구분별	20代	19.6	66.7	11.8	2.0
	30代	27.2	54.3	18.5	0.0
	40代	30.5	56.4	25.7	1.6
	5,60代	26.7	61.9	20.9	0.6
경작규모별	영세농	18.2	70.5	11.4	0.0
	소농	23.3	57.0	18.4	1.3
	중농	28.9	59.0	11.1	1.0
	대농	31.7	56.7	10.8	0.9
학력별	국졸	24.0	61.1	13.5	1.4
	중졸	27.1	60.7	11.1	1.1
	고졸	31.6	54.7	13.1	0.5
	대졸	26.8	56.1	14.6	2.4

都市에서 살고 싶다는 「離農」으로 28.2%, 都市에 가서 살다 돈을 벌면 다시 농촌에 와서 살겠다는 「離農 후 歸農」이 12.5%, 「무응답」이 1.0%이었다.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응답 결과이다. 계층별로 보면 低學歷層일수록, 零細農層일수록 農村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比率이 높았으며 大農層일수록 農村을 떠나 都市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比率이 높았다.

農村定着意思와 營農從事滿足 여부, 農村定着意思와 農業의 장래성을 크로스 체크하여 이를 深層 분석한 결과는 〈表 18, 表 19〉와 같다.

表 18 농촌정착 의사와 영농종사만족 여부

	무응답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계
무응답	0.2	0.0	0.1	0.3	0.3	0.1	1.0
이농	0.1	0.1	2.0	8.4	12.2	5.5	28.2
농촌정착	0.2	3.1	18.3	18.1	15.5	3.0	58.2
이농후귀농	0.1	0.1	1.6	4.7	4.7	1.3	12.5
계	0.6	3.3	22.0	31.5	32.8	9.9	100.0

表 19 농촌정착 의사 여부와 농업의 장래성

	무응답	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다	별로 없다	반드시 막다른 곳에 도달한다	계
무응답	0.2	0.0	0.5	0.3	0.0	1.0
이농	0.8	1.4	8.4	16.1	1.6	28.2
농촌정착	1.9	13.9	26.8	14.3	1.4	58.2
이농후귀농	0.4	1.1	6.4	4.3	0.3	12.5
계	3.3	16.5	42.1	34.9	3.2	100.0

〈表 18〉을 보면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은 농사짓는데 대체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農村을 떠나 都市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농사짓는데 약간 불만이며, 都市에서 살다 돈을 벌면 다시 농촌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은 농사짓는 것이 그저 그렇고 약간 불만이기 때문임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농사짓는데 대체로 만족하고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8.3%로 가장 많았다

〈表 19〉에서는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농업의 장래성이 있

다]는 소극적인 긍정으로, 農村을 떠나 都市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은 「農業의 장래성이 별로 없다」는 소극적인 부정으로, 都市에 가서 살다 돈을 벌면 다시 農村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은 「農業의 장래성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다」는 소극적인 긍정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다. 農業의 장래성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발전될 것으로 보아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사람은 전체의 26.8%로 가장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農事짓는 데 대체로 滿足하고 있고 農業의 장래성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있기 때문에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어, 農村은 아직도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 11. 經營主의 農業外 희망職業

이에 대한 設問은 「귀하가 農業 이외의 다른 직업을 원한다면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입니까」로, 응답 결과는 <表 20>과 같다.

農業 이외의 직업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商業 및 서비스로 이의 전체에 대한 구성비가

表 20 農業外 희망 職業(경영주)

종 류	빈 도 수(개)	구 성 비(%)
상업 및 서비스	659	44.5
축 산·원 예	199	13.4
공 무 원	112	7.6
기술 및 기능	63	4.3
사 무 직	48	3.2
사 업 가	17	1.1
교 육 자	16	1.1
수 산	7	0.5
의 사·한의사	5	0.3
종 교 인	3	0.2
정 치 가	3	0.2
작 가	1	0.1
무 응 답	347	23.4
계	1,480	100.0

44.5%나 되고 있는데, 이는 장사를 하는 데는 특별한 技術이나 學歷이 요구되지 않아 어떤 종류이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畜産 및 園藝로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것이 현재 收益性이 높은데다 정부에서 각종 支援資金을 방출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직업들은 실제로 농민들이 즉시 취업이 가능한 것들이며, 그 밖의 직업들은 대부분이 농민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취업이 어려운 직업들이다. 公務員과 같은 생활이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7.6%, 技術 및 技能職種이 4.3%, 事務職 3.2%로 이들이 選好度에 있어 中位圈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직업들의 비중은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무응답」은 23.4%나 되었는데 이는 農業 이외의 다른 직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 12. 子女에게 農業勸獎意思 여부

이에 대한 設問은 「자녀에게 農業을 권하시겠습니까」로 응답 결과는 <表 21>과 같다.

「子女의 意思에 맡기겠다」가 전체의 61.4%로 가장 많은데 이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民主主義的 思考方式이 農村에도 널리 퍼져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권하겠다」로 34.4%, 「적극적으로 農業을 권장하고 협조하겠다」는 3.7%, 「무응답」이 0.5%이었다. 이것 역시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이다.

계층별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零細農일수록

表 21 자녀에게 농업권장 의사 여부

구분	농업권장	타직업권장	자녀의사	무응답	
평균	3.7	34.4	61.4	0.5	
연령구분별	20代	5.9	11.8	82.4	0.0
	30代	3.1	33.1	63.4	0.4
	40代	1.5	37.0	61.2	0.3
	5,60代	6.8	33.9	58.5	0.8
경작규모별	영세농	6.8	29.5	63.6	0.0
	소농	3.6	31.8	64.6	0.0
	중농	3.3	34.2	61.6	0.9
	대농	4.1	36.9	58.7	0.2
학력별	국졸	4.7	28.4	66.2	0.8
	중졸	3.9	34.5	61.3	0.4
	고졸	3.2	37.3	59.1	0.4
	대졸	2.4	34.1	62.2	1.2

子女의 意思에 맡기겠다는 比率이 높은 반면 老年層일수록, 大農層일수록 他職業을 권장하는 비율이 높다. 적극적인 農業勸獎은 低學歷層일수록 뚜렷한 것이 注目할 만한 일이다.

13. 子女에 대한 農業外 勸獎職業

이에 대한 設問은 「子女에게 다른 職業을 택하도록 권한다면 희망하는 職業은 무엇입니까」로 응답 結果는 <表 22>와 같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期待가 가장 큰 職業은 公務員으로 전체의 32.2%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농사가 먹고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

表 22 農業外 권장職業(자녀)

종류	빈도수(개)	구성비(%)
공무원	477	32.2
기술 및 기능	195	13.2
상업 및 서비스	183	12.4
교육자, 학자	123	8.3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63	4.3
사무직	48	3.2
축산, 원예	31	2.1
사업가	14	0.9
정치가	11	0.7
종교인, 음악가	4	0.3
수산	1	0.1
무응답	330	22.3
계	1,480	100.0

나 天候條件에 따른 凶豊과 農產物價格의 심한 騰落으로 생활에 안정감을 얻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안정감있는 公務員을 택하도록 하려는 것, 그리고 우리 社會에 아직도 뿌리깊이 박혀 있는 官尊民卑 사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기술 및 기능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產業發展과 함께 專門技術人의 選好度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商業 및 서비스도 選好度가 높아 12.4%가 되고 있다. 그 밖에 教育者(8.3%), 醫師(4.3%), 事務職(3.2%), 畜産(2.1%)이 中位圈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職業은 미소한 것이었다. 반면 「무응답」은 22.3%인데 이는 자녀에게 農業 이외에는 다른 職業을 권장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이 포함되었거나 教育水準이나 教育 기회와 관련, 어쩔 수 없이 농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14. 農業施策에 관한 建議事項

과거의 農政施策에 농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農政施策은 과연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對政府 建의사항을 물어 보았다. <表 23>에서 農민들의 建議事項은 「農畜產物 價格保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營農資材」, 「秋夏 穀收買」, 「農村社會」, 「營農資金」, 「生産基盤造成」 등의 순위로 되어 있다.

農민들의 對政府建議 빈도가 가장 큰 「農產物 價格保障」은 農家所得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農畜產物輸入」, 「農畜產物流通改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農民들은 流通構造改善과 정확한 農畜產物 生産量 파악으로 최소한의 소요량만을 수입하여 農畜產物이 제

表 23 농업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종 류	빈 도 수(개)	구 성 비(%)
농축산물가격 보장	689	23.3
영 농 자 계	316	10.7
추 하 곡 수 매	270	9.1
농 촌 사 회	165	5.6
영 농 자 금	160	5.4
생 산 기 반 조 성	155	5.2
농 축 산 물 수 입	130	4.4
농축산물유통개선	111	3.8
농 지 세 및 水稅	91	3.1
축 산	48	1.6
농 의 소득기회 마련	34	1.1
농 업 통 계	19	0.6
특 작	19	0.6
물 가 안 정	9	0.3
농 업 재 해 보 험	9	0.3
노 동 력 및 노 임	8	0.3
농가방송 및 농민신문	1	0.1
무 응 답	726	24.5
계	2,960	100.0

값을 받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農産物 價格豫示制로 安全營農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秋穀收買」에 있어서 수매가 문제를 포함한다면 農産物價格 보장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營農資材」문제에서는 비료, 농약 등 農業資材價格引上率의 완화, 農機械를 저렴한 가격으로 長期融資, 種子供給을 지역실정에 맞게 공급해 줄 것을 내세웠다. 「秋夏穀收買」는 希望全量을 早期收買해 줄 것을 요망했다.

「農村社會」에 있어서는 地域特性에 알맞는 營農指導와 指導員資質 향상, 營農後繼者를 많이 양성 해 줄 것, 醫療保險 실시, 농번기의 예비군훈련 지양 등을 바라고 있으며, 「營農資金」은 資金供給을 원활화시키고 동시에 中長期資金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生産基盤造成」은 경지 정리와 農路개설을 통한 機械化 촉진, 객토, 퇴비증산 등 農土培養사업과 管井 등을 통한 地下水開發이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다.

그밖에 農地稅率引下와 水利稅의 不合理性을 是正, 畜産장려, 농한기 副業 알선과 農村工業育成 등을 통한 農外所得 기회 마련, 農業統計의 精確性 提高, 특용 작물의 생산 조절로 過剩生産 억제, 물가안정, 農業災害保險의 실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機械化 營農의 과학적인 지원, 農産物 時勢 등의 情報를 많이 방영하고 보도해 줄 것 등의 건의가 있었다. 반면 건의내용이 없는 無應答도 24.5%나 차지했다.

#### IV. 맺는 말

지금까지 農民意識構造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以上の 分析結果에서 밝혀진 여러 현상들을 肯定的인 측면과 否定的인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함과 동시에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한다. 우선 農村에 대한 「밝고도 肯定的인 측면」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전에 비한 農村生活水準이 向上되었 으며, 둘째, 農業은 國家의 根本이고, 셋째, 앞으로도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며, 넷째, 農業에는 將來性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都市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고, 농사짓는 데 대한 생각도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을 제외할 경우 不滿이 만족보다 높은 편이며 農業은 다른 産業에 비해 손해라고 하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자녀에게 農業 勸奨意思 여부를 묻는 設問에 자녀들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대답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農村의 意識構造가 家父長的 權力體制의 사고방식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말하자면 민주

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이 되었거나 또는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階層別로 볼 때 農村生活의 「밝고 긍정적인 면」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층은 상대적으로 營農이나 생활 조건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층이 대부분으로, 耕作規模別로는 零細小農層, 學歷別로는 低學歷層인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層別로 볼 때는 젊은 층일수록 특히 20대에서 모든 설문에 대해 밝고도 肯定的인 답을 한 비율이 높았다. 한 가지 예외는 學歷別로 高學歷일수록 5년 전에 비한 농촌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었다.

반면, 農村生活의 「어둡고 否定的인 면」에 응답한 比率이 높은 층은 상대적으로 營農이나 生活條件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층이 대부분으로, 耕作規模別로는 大農層, 學歷別로는 高學歷層인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層別로 볼 때 老年層이 否定的인 면에 응답했던 比率이 다른 年齡層보다 높았던 것은 農業의 將來性 여부에 대한 設問에서 尙래성이 별로 없다고 응답한 경우이었다.

本調査는 本研究院이 農民團體 및 農村指導所, 行政機關의 추천을 받아 선정, 委囑한 현지 通信員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全體 農民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응답 결과가 유의성 있는 것인지에 대

한 論議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지 通信員들의 대부분이 篤農家이며, 그중에는 또 새마을 指導者 및 里長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농촌에서 사실상 輿論形成者(opinion leader)의 機能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本調査의 응답 결과는 그 신빙성이나 유의성에 있어서 크게 疑念이 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 통신원들은 지난 4년간 本研究院이 실시한 이와 유사한 농정에 대한 여러가지 輿論調査나 農家經濟조사에 응답한 경험이 많아서 방법이나 技術上 생길 수 있는 信賴度의 문제는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 의식구조 조사와 응답 결과가 앞으로 우리 農業 및 農村社會에 대한 長短期政策 연구 및 樹立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 參 考 文 獻

- 金文植, 「農業經濟學概論」, 一潮閣, 1977.  
 高永復, “농민의 의식구조와 변화,” 「여성」, 1978. 8.  
 ———, “농민의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 1978. 8.  
 農協中央會, “韓國農民의 意識構造分析,” 「농협조사 월보」, 1978. 3.  
 福武直, 「農村社會と農民意識」, 有斐閣, 1972. 6.  
 金敏男, 崔益秀, “農民의 意識構造 變化,” 「農村經濟」, 제 5권 제 2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